

개혁주의 성경신학에 대한 고대근동학의 공헌(II) : -종교정책학적으로 본 “거룩”이해 “지성소취장”을 중심으로-

김진섭 목사*

서론 : 성경의 종교정책학적 기능

딤후 3:16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갖고 있는 네가지 기능—그 논리적 순서와 포괄적 진술과 함께—을 “교훈(즉 교리)과 책망(‘ελεγγυός’)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 어떤 본문을 접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책적인 (elentic)기능에 우리자신을 승복시켜야 하며, 예를 들어 “거룩”의 주제에 대한 이 논고도 성경본문을 다루는 한 우리의 성

*철학박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California 구약학 객원교수, 미국 가주말투스교회 담임목사

1) 본 논고는 지난 4월 28일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California 구약학 객원교수 초청기념으로 학술강연한 “Elenctic Understanding of the ‘Primitive’ Idea of the Holy in the Bible and in milieu of the Ancient Near East, Specifically Hebrew and Sumerian barag, ‘adytum—Curtain’의 일부를 한국학계를 위하여 재 편집한 것이다. 본 논고는 필자가 몇년전 발표한 “개혁주의 성경신학에 대한 고대 근동학의 공헌 : 십자가와 지구랏”(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69-122p)에서 약속한대로(101-102p, 각주 72 참조), 고대근동학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구속사적, 기독교적, 십자가 신학적”이해에 어떤 새로운 조명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본고의 보다 학적인 자료제공을 위하여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Barag in Sumerian Literature : A Study of Historical Semantics with Emphasis on Its Referent and Cultural Function”(Ph.D.disseitation Annenberg Research Institute, Successor to Dropsie College, 1991)을 참조하라.

본 논고는 독자와의 보다 분명하고 용이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능한 전문성—고대근동학의 측면에서—을 피하고 광범위한 학문적 논란의 지지 문헌에 대한 인용을 생략하고, 본 주제에 대한 발견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화과정에 정책적인 공헌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이란 독특한 개념으로 기독교 과학철학의 명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바, “무엇을”(본체론, 학문의 대상), “어떻게”(인식론, 방법론), “왜”(가치를, 가치체계)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어떠한 학문도 반드시 성경의 “정책학적” 기능에 승복되어야 할 것은 전제로 한다. 흔히 “비교종교학”(Comparative Religion)이라 불리우는 학문이 주로 현대의 종교현상을 기독교도 그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켜 그 제종교 현상간의 유사성과 특이성을 비교연구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거니와, 절대 계시된 진리로서의 기독교신앙은 그 독점적, 배타적 규범을 가지고 잘못된 제종교현상을 분석, 정책, 교정하는 “종교정책학”(Elenctics)이란 새로운 학문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별히 종교정책학이 고대근동학의 가장 큰 유산중에 하나인 그들의 종교적 제도를 성경(특히 구약)의 문화적 접촉점과 관련하여 재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할때(예: 출 20:2-7; 레 26:1; 신 27:16; 시 97:7; 135:15; 사44:9-20; 렘 10:3-13; 겔 8:3-18등),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세련화 작업과 특별히 개혁주의 선교신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논고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계속적인 방법론적 시범으로서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성경에 나타난 ‘거룩’ 개념의 원소적(Primitive) 출발점

학계는 거룩에 대한 정의를 루터교신학자 Otto박사의 고전적인 한 연구에서 인용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numinous”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iosum experience as sacred, minus its moral and rational factors.²⁾

이 정의는 우리가 논하려는 거룩의 실체가 되는 “numen”의 성질에 대한 고찰보다는 “numen”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으로서의 반응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에, 거룩의 원소적 개념에 대한 연구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거룩 개념의 원소적 출발점을 “지성소 휘장”(תְּכָרֶמֶת, adytum—curtain)의 설계와(출26:31-37), 그 실제적 완성(출 36:35-28)의 본문을 통하여 추적해 볼 수 있다. 왜 “지성소 휘장”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는 원소적 출발점이 될 수 있는가란 질문을 언어학적

2) Rudolf Otto,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John W. Harvey 번역(London: Oxford University, 1923, 1950), 6, 40p.

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지성소 휘장”을 만드는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인바(출26:31=36:35; 대하 3:14 참조), 이것은 성막(즉, 휘장으로 막은 성소, Curtained Cubicle)을 만드는데 사용된 꼭 같은 재료이다. (출 26:1-30=36:8-34)이 사실은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는 성경 히브리어 단어 תְּכָרֶמֶת 이 어원적으로 수메르어 barag에서 왔기 때문에 후론하겠거니와 언어학적인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지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הַיְיָ, Hi)”(출 26:33), 따라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그 지성소 휘장으로 가리워(וְכִסָּה)”(출40:3)기능을 가지므로, 후론하겠거니와 거룩의 원소적 개념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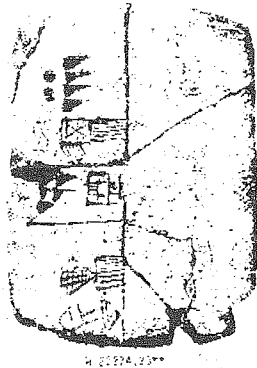
II. “지성소 휘장”의 언어학적 고찰

성경 히브리어의 תְּכָרֶמֶת 수메르어 barag과 같은 어원이라는 사실이 고대근동학의 태동기에서부터(1860년대) 쉽게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셈족어인 아카드어에 나타나는 수메르어 차용어로서의 Parakku란 단어 덕분이었다.⁴⁾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의 תְּכָרֶמֶת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선사적, 어원적(prehistorical, etymological)의미를 수메르어 barag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는 주전3,300년 경부터 그림문자(pictograph)로 나타나는 수메르어이기 때문에 흔히 “역사는 수메

3) 이 중요한 “문화어”(Kulturwort) תְּכָרֶמֶת이 가장 최신 성경/신학 사전류에서 등한시 되거나 잘못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도, 이 단어가 수메르어 barag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 하면서도 수메르 문헌에 나타나는 barag의 동시대적(diachronic) 의미변천(semantic change)과 문맥적, 동시대적인(Contextual, Synchronic)의미 및 문화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데서 기인되고 있다. 비교: Gane/Milgrom, “תְּכָרֶמֶת”,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G(1989)755-57; R.Laird Harris, e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2 Chicago: Moody Press, 1980, 735 no. 1818a에서는 תְּכָרֶמֶת에 대한 단 한줄의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4) 구약에 25번 나타나는 תְּכָרֶמֶת은 “휘장”의 뜻을 가질수 있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תְּכָרֶמֶת, תְּכָרֶמֶת, תְּכָרֶמֶת, תְּכָרֶמֶת, תְּכָרֶמֶת, תְּכָרֶמֶת), 왜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선택 고정되었으며, 어떤 통로로 성경 히브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는 언어학적 질문과 함께, 이 단어가 수메르어 barag의 차용어(loanword)인지, 아니면 비셈족어인 수메르어의 barag이 셈족어/Parag/의 차용어인지 등의 질문은 이 논고에서 다루지 않겠다. 필자의 학위논문의 제1장과 제4장을 참조하라.

르에서 시작한다”(History begins at sumer)고 말해진다.⁵⁾ 그림문자로서의 최초의 조판들이 발굴된 우룩(성경의 “에렉”, 창10:10참조)에 나타난 “직물계정” 본문(Textile Accounts Texts) 속에(약 주전 3,100년경) 벌써 barag이란 단어가 다른 종류의 직문과 그 갯수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M.W.Green and Hans J. Nissen, *Zeichenliste der Archaischen Texte aus Uruk* (Berlin, 1987), Tafel 25, W 20274, 23**

음역

2×ZATU N-14 4×ZATU
N-1 barag

5×ZATU N-1 ZATU 764
ga-Sig gu₇

Green과 Nissen 두 학자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 우룩토판에 나타난 모든 최초 그림 문자들을 분류한 결정판에서, 우리는 barag의 글자모양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2a 참조). 이 중요한 책이 1987년 출판되기 전까지는, 고대근동학자들이 최초의 그림문자를 R. Labat, *Manuel D'epigraphie Akkadienne* (Paris, 1976⁶⁾)에 수집되어 있는 “고전 우르”(Archaic Ur, 약 주전 2,900년경)그림문자에 의존해 왔다(그림 2b 참조). 따라서 이미 그림문자가 한단계 대칭형태로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시물(Referent)을 추측할 수가 없게 된 것이 다.

이제 우리는 우룩토판의 barag 그림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지시물은 “조잡하나마 잘 짜여진 직물”인 것으로 근거있는 추정을 내릴 수 있다.⁶⁾

5) 글자의 기원문제와 관련한 여러질문들에 대한 가능한 해답들에 대하여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제3장을 참조하라, 모든 인류의 역사시대의 시작을 수메르에서 찾게된 것은 Samuel Noah Kramer, *History begins at Sumer: Thirty-Nine Firsts in Man's Recorded History*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1)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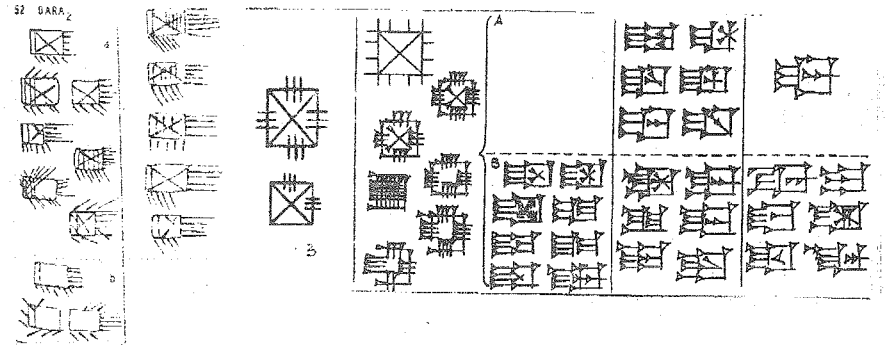
6) 고대근동 비교언어학에 있어서 우룩의 최초 그림 문자들의 지시물에 대한 분석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현존 고대근동 비교언어학에 가장 주도적 위치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 동양연구소(The

UrukIV/III (ca. 3,100BC),
Green-Nissen, 전게서, 180p

Archaic Ur (ca. 2900 B. C.)
R. Labat, 전게서, 156p

2a

2b



(그림2)그림문자 barag의 통시대적 변천

고대근동에 길들인 양/염소는 주전 약7,000년 경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직조용 삼(flax)도 주전 약 5,500년 경부터 이라크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곡류나 광물의 무역 운반 도구로서 요구되는 통자루나, 아마인유(linseed oil)를 걸러내기 위해 요구되는 삼베자루 등은 모두가 양/염소털이나 삼베로 짠 “자루용 거친 직물”(sackcloth)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 주전 2,400년 경부터 나타나는 수메르 문헌(경제 문서, 서사시, 애가, 신화, 자장가, 격언집, Sumero-Akkadian 사전집 등) 전반에 나타나는 barag의 지시물은 한결같이 기본적인 지시물인 “자루용 거친 직물”의 특징을 반영하는 다음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1) 보

Oriental Institute)의 수메르어 책임자 Civil 박사의 주장은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I do not include in the list[i.e. lexicographic resources] either etymological dictionaries based on the signs” *Urbild* and *Grundbedeutung* or comparative dictionaries that attempt to relate Sumerian to any number of otherlanguage. . . . The graphic analysis of pictographs is an archaeological problem and totally irrelevant to linguistics. . . . all of these studies can be safely disregarded by the Sumerologist.” (“Lexicography” in *Studies Jacobsen*) (*Assyriological Studies* 20) 138. 지금까지 시도된 그림문자 분석에 관한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제3장 각주 60을 참조하라.

7) 수메르어 문헌의 통시대적 자세한 고찰은 필자의 학위논문 제3장을 참조하라.

리나 밀자루, (2) 삼목송진이나 소나무씨 자루나 귀금속 광물 담은 가죽주머니의 덮개자루, (3) 무역운반용 당나귀 안장 자루, (4) 의자나 침대용 천, (5) 염소털로 짠 직물, (6) 거칠게 짠 허드레 자루, (7) 기름짜는 자루

이 수메르어 barag은 곧 고대근동의 여러 문화권으로 확산되어⁸⁾, (1) Eblaite(주전 약 2,500-2,300)에서는 어떤 관리에게 선물로 준 “제사용 직물”(?)로, (2) Hittite(성경의 “헛”족속; 주전 약 1,650~1,150)에서는 최하위의 제사 종사자들에게 공급된 값싼 “제사용 조잡한 의복”으로⁹⁾, (3) Akkadian parakku는 “염소털로 만든 안장자루”, “담요, 방석”, “지성소”의 뜻으로, (4) 우라이트어(Ugaritic 주전 13-14세기) prk는 문맥이 불확실하며, (5) phoenician(주전 5세기 중엽) prkm는 “휘장 파숫군”(?, 즉 성전 문지기)으로, (6) Aramaic(주후 2-5세기) prk는 “지성소”로, (7) Syriac의 prakā(혹은 praktā)는 “시쿨 근교에 신사 내지 소신전”으로, (8) Mishnaic Hebrew pargôd는 “조잡한 옷; 휘장; 지성소 휘장”의 뜻으로, (9) Mandaic prikia(혹은 prukia)는 “이방신사와 그 영들”로, (10) Greek παραγανδας(혹은 -γανδ-; -δης)는 “자주빛 가장자리의 옷”으로, (11) Latin paragauda(혹은 paragaudis)는 “금, 은, 자주빛 가장자리의 삼베 옷”의 뜻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성경 히브리어 תְּבִישֵׁת과 함께 약 12개 고대근동언어에 사용된 어원적으로 확실한 관련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의 용법을 통하여 오직 성경히브리어만이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본래는 종교적 개념이 전혀없는 세속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자루용 거친 직물”에서 출발하여) 의미변천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¹⁰⁾

8) 보다 자세한 고대근동의 여러문화권 속의 본문에 나타난 barag 사용에 대한 고찰은 필자의 학위논문 제4장을 참조하라.

9) 히타이트어에서는 차용된 수메르어 barag 앞에 고대근동 여러 언어 가운데서 유일하게도 “옷” 종류를 나타내는 결정사 [determinative; 중국어의 “번”과 비슷한 기능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종류(예: 사람, 왕, 신, 새, 강/바다, 운하, 산 등)의 것인가를 식별하게 함] tug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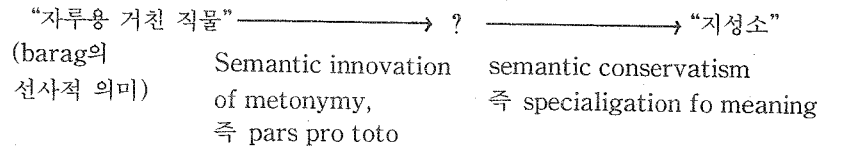
10) 이 현상을 언어학적으로 “Semantic Conservatism” 즉, “specialigation of meaning” 이라 부르는바 구약 Septuagint와 신약 헬라이어 사이에 나타난 이 현상을 다룬 Moises Silva, *Biblical Words &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79-81을 참조하라.

III. “지성소 휘장”의 신학적 고찰



성소자체 (בְּיָדוֹ)가 거룩한 곳임에도, 거룩의 최상급 상태로서의 지성소(מִצְבֵּאתֵי הַקֹּדֶשׁ), 즉 그 거룩(한 것)들의 거룩(을)을 다시 구별하는 “지성소 휘장”이야말로 “거룩”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성소 휘장”은 역리적인 이중기능(paradoxical function)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철저한 거룩과 세속, 거룩과 절대거룩의 절대적 분리이다. 어떠한 세속에의 노출, 오염, 신성모독을 초래하는 접근을 막아 지성소안에 존재하는 물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러한 접근을 시도하는 예배행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발생을 방지한다. 둘째로, 합법적인 신의 재가에 따라서 “성막”이라 불리우는 “분리 휘장”(partitioned cubicle)은 “회막”(בְּיָדוֹ לְהַלֵּל, 출29:42, 43; 30:36; 33:7; 민12:4; 왕상 8:4 등)이 된다. 왜냐하면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증거궤”(אֲרֹן הַבְּרִית, 출 26:33)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만나시기”(בָּרַךְ, Ni) 때문이다(출 30:6=40:26; 참조25:22; 민 17:19). 즉 “지성소 휘장”은 분리와 말씀의 역리적 이중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¹¹⁾

수메르어 baragi “지성소 휘장”이란 뜻으로 사용된 수메르 문헌의 실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나 barag의 가장 보편적 의미(즉 지시물)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의미변천의 논리상 “지성소 휘장”의 뜻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을 성경히브리어가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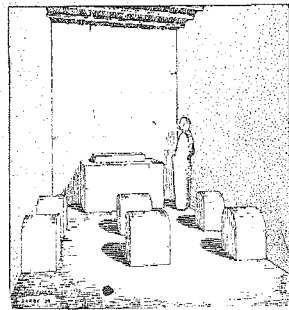
[“지성소 휘.



11) W. Andrae는 지구랏(Ziggurat; 메소포타미아에서만 발굴되는 인공적인 산) 정상신전(Hochtempel)을 “Wohnungstempel”로 (즉, 어떤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신들의 침소로); 기저신전(Tieftempel)을 “Erscheinung stempel”로 (즉, 신을 경배하며 만나는 연회장으로) 해석하고 있음은 올바르게 본 신전의 역리적 이중기능이다. 청교도들이 교회를 “Meeting house”라 부른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W. Aarrae, *Das Gotteshaus und die Urformen des Bauens im Alten Orient* (Berlin; Hans Schoetz & Co., 1930)14p 이하와 필자의 학위논문 제5장을 참조하라.

뿐만 아니라, 수메르어에 (1) 신상들의 몸을 가리우는 신전휘장에 대한 용어들 [예 : fugdul= (Akkadian) *šitru*; fug gada-lá= *gadalû*; tûg šu-kud-da=šiddu;비교 : *bīrit siddû*, “휘장으로(둘러친) 간막이 성소”, Aramaic ; Greek $\chi\iota\upsilon\lambda\iota\varsigma$; Latin Cancellus; 모세시대의 “성막” (; 히 9:3 $\sigma\kappa\eta\nu\eta$]; (2) 신상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휘장용어들(예 : dul= *pusummu*; Kid-má-mah= *Kutummu*); (3) 신상들의 머리를 덮는 “달집”(baldachin) 용어들(예 : an-dûl= *andullu*; utah= *šamû*; *ermu Ani*); (4) 기타 휘장 용어들(예 : Kuš-e-īb= *mēzehu*; *massaku*)을 통하여 “지성소 휘장”이 존재한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고고학적인 유산들은¹²⁾ 지성소 휘장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흥미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1) 지성소 휘장 고정용 “닻”(anchors) (그림 3 a, b 참조)—지성소의 신상을 올려 놓는 신단(dais) 앞에 두줄로 나란히 놓여있는 닻 모양의 낮은 흙벽돌기둥들의 기능에 대하여 고대근동 언어학자이자 동시에 고고학자인 **Th. Jacobsen** 박사는 “anchors for curtains hung from the ceiling and weighted at their lower edges with rods of wood or metal. The rods would swing against the pillars as anchors, so that no blast of wind or draft would lift the curtains and expose the deity on the dais behind them to profane gazes.”라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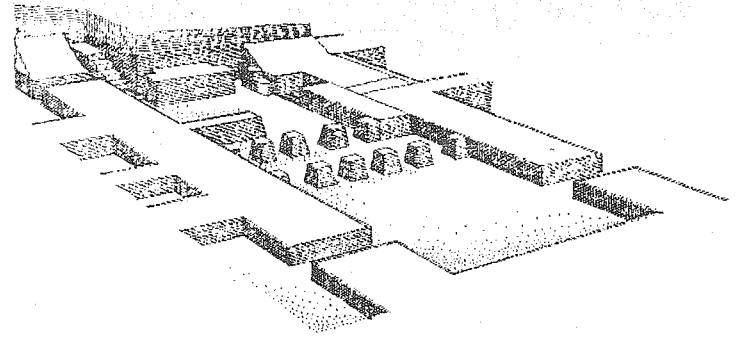
Delougaz and Lioyd, *Presargonic Temples in the Diyala Region*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5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76p Fig. 69

(그림 3a)

Pre-Sargonic Early Dynastic II (주전약 2,500-2,300년) the Sin temple X at Khafaja

12) 지성소 휘장에 대한 문헌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증거에 대한 상론은 필자의 학위논문 제 4 장을 참조하라.

13) H.D. HILL and Th. Jacobsen, *Old Babylonian Public Buildings in the Diyala Region, Part one : Excavations at Ishchali* (Oriental Institute 9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59



(그림 3b)

the Shara Temple at Tell Asmar 전게서, 230페이지 Fig. 177

(2) “역청고리”(bitumen rings)—Isin/Larsa시대 (주전 약 2,000—1,800년)의 Ur의 가정신단이 놓여있는 한 방의 두 벽쪽 하단에 붙어있는 “역청고리”는 바람에 의해 지성소 휘장이 들려 올려져 휘장 안의 신단위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장 최하단에 감겨져 있는 수평막대기를 각각 양 벽쪽의 “역청고리”에 끼워 고정시켰다.¹⁴⁾

(3) Sargonic시대의 (주전 약 2,334-2,193년) 원통형 인장(Cylinder Seals)에 묘사된 지성소휘장

(a) Utu(= *Shamash*)가 그의 Ebabbar신전의 지성소휘장 안에 앉아 있는 모습(그림 4a)

(b) Enki(= $\epsilon\alpha$)가 그의 Abzu 신전의 지성소 휘장안에 앉아 있는 모습(그림 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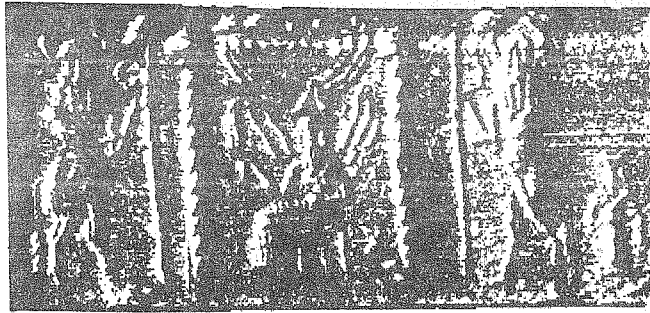
(c) 다른 신들이 지성소휘장 안에 앉아 있는 모습(그림 4c)

(4) “축” 접근식(axis—approached)¹⁵⁾ 진흙 신사모형(그림 5 a, b)

(5) Sippar(현재 Abu Habba) 주초 토관—Nabu-apal-iddin (주전 885—852) 왕이 Ebabbar 신전의 지성소휘장안에 앉아 있는 Shamash 신에게 드린 것(그림 6)

14) 이 흥미로운 관찰은 Ur 발굴자였던 L. Woolley경이 M. Mallowan과 함께 집필한 *The Old Babylonian Period* (Ur Excavations 7; London and Philadelphia;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6) 29-30 페이지와 Pls. 44a, 44b를 참조하라. Jacobsen의 재인용은 Hill and Jacobsen, 전게서, 59 페이지 각주 48을 보라.

15) 본래 고대근동에서 지성소를 접근하는 방법은 “bent—axis” (신상을 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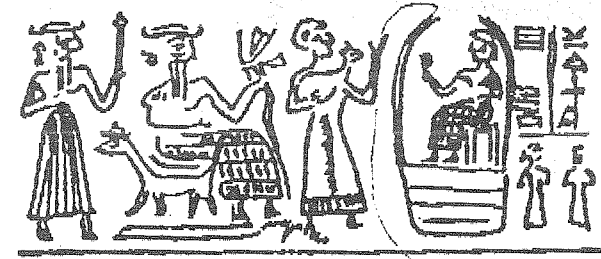
(그림 4a)¹⁶⁾ D.E. Mceown, R.C. Haines, and D.P. Hanson, *Nippur I : Temple of Enlil, Scribal Quarter, and Soundings*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7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l. 109:11



(그림 4b) C.L. Woolley, *The Royal Cemetery*(Ur Excavations 2; London and Philadelphia: The Trustees of the Briti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Denny Ivania, 1934), Fig. 364 with Pl. 215.

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아야만 되는 신전구조)에서 진보되어 “Ur III시대 이후로 (주전 약 2,112년) 성경의 성막/ 성전과 같이 뜰—성소—지성소가 한줄로 한꺼번에 놓여있는 구조로 바뀌어졌다. 따라서 고대장인들이 묘사하고 있는 “축” 접근식 신상앞에는 반드시 지성소 휘장이 있었을 것을 단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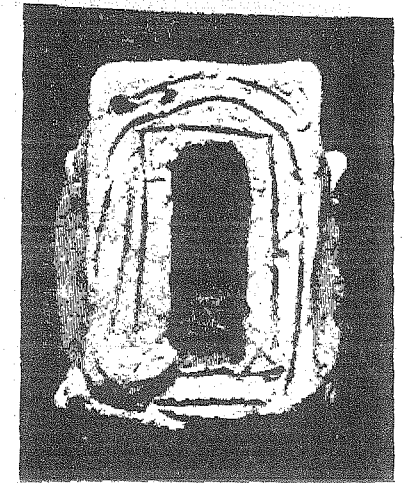
- 16) 사진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두 꼬여진 기둥들을 사이에 지성소휘장이 14개의 “고”(𒀭𒀪𒀭, 출 26 : 4, 5, 10, 11=36 : 11, 12, 17)나 “갈고리” (𒀭𒀪𒀭 : 출 26 : 6=36 : 13 ; 26 : 11=36 : 18 ; 26 : 33 ; 35 : 11=39 : 33)나 “휘장걸개”(𒀭𒀪𒀭, 왕상 6 : 21 ; 대하 3 : 14 ; 비교, 마 27 : 51 ; 히 6 : 19) 가운데 8개는 4쌍의 lace나 pendant를 늘어뜨리기위해 사용되고 있는 바 이것은 “지성소휘장”에 대한 놀랄 정도로 섬세한 묘사와 함께, 모세 성막의 지성소휘장과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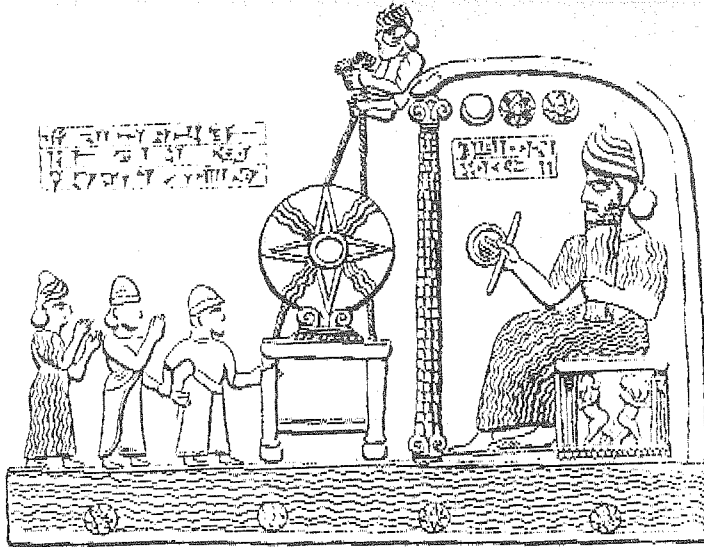
(그림 4c) P. Amiet, *Revue Biblique* 62(1955) 409페이지 Pl. V.4



(그림 5a) Van Buren, *Yale Oriental Series, Researches* 16(1930), 207페이지 No. 1006과 Pl. LIII Fig.255



(그림 5b) A. Spycket, *Les Statues de Culte dans les Textes mesopotamiens des Origines a la 1^{re} Dynastie de Babylone*(Paris: J. Grabalda et Cie, Editeurs, 1968) 26페이지와 Pl. Vol.1



(그림 6) L.W. King, Babylonian Boundary Stones and memorial Tablets in the British Museum(London, 1912), no. XXXVI, with literature.

IV. “지성소 휘장”의 종교정책학적 공헌

성경 히브리어 מִזְבֵּחַ 이 어원적으로 수메르어 *barag*과 관련되고, 고대 근동에 수메르 *barag*이란 단어가 “자루용 거친 직물”이란 선사/원시개념을 갖고, 약 12개 고대근동 언어에 유포되는 과정에서 유독 “지성소 휘장”이란 전문용어로만 성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대로 *barag*이 실제 수메르 문헌에서 “지성소 휘장”이란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지성소) “휘장” 용사들과 지성소 휘장의 고고학적 증거들과 함께 고대근동의 종교개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책학적인 공헌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앞으로 약 20년간의 계획하에 처음으로 출간된 수메르사전 첫 분책 (“B”)은 수메르어 *barag*에 대한 알려진 모든 문헌을 수록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다시 말하면, 모든 학계가 공인하고 있는) 내리고 있다.¹⁷⁾

17) Ake Sjöberg, ed. *The Sumerian Dictionary of the University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vol. 2: “B” (Philadelphia: The Babylonian Sec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1984), 134-146

barag A. “(throne)dais”

B. “Sack”

이 수메르사전(약칭 PSD= Pennsylvania Sumerian Dictionary)의 정의는 현 학계가 이 단어에 대해 안고 있는 두가지 난제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barag* A와 B 사이의 관계는 다의적(polysemous)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적(homonymous)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명을 하지 않으며, 둘째, *barag* A의 지시물이 왜 “지성소신단”(dais)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란 점이 다. 필자는 앞에서 살핀대로, *barag* A와 B의 관계는 다의적인 관계이며, 어원적의미(“자루용 거친 직물”)의 *barag* B에서 의미변화를 거쳐 *barag* A가 되었는데, *barag* A의 지시물은 학계와 PSD가 이해하는 대로 “지성소신단”이 결코 아니라 “지성소”(“지성소 휘장” 뜻에서 환유된, 즉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 변화에 의하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이 의미변화를 도식화 해보자.

(학계)

자루(*barag* B)……지성소신단(*barag* A)

(아무런 관계가 없음; 즉 동음이의)

(필자)

자루용 거친 직물 → 자루 → [지성소 휘장] → 지성소

(*barag* B)

(*barag* A)

지금까지 *barag*을 “지성소신단”으로 이해한 근본적 이유는 *barag* A와 *barag* B간의 수메르 문헌적 연구없이, 고고학적 발굴에 나타나는 고대근동의 신전들의 지성소 부분에 꼭 신상을 놓을만한 신단(dais)이 항상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barag* A가 쓰여진 모든 문맥에 “지성소 휘장”으로 번역해도 별 무리가 없으므로 학계가 무비평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¹⁸⁾

뿐만 아니라, *barag*의 지시물이 “지성소신단”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첫째, “신단”의 기본적 재료는 “흙”이므로 결코 “거친 직물”의 어원적 의미와 조화될 수 없고, 둘째, “신단”의 기본적 특성은 “높이”(loftiness)에 있다면, 본래 “지성소 휘장”은 “광채”(sheen)에 있기 때문에—후론하겠거니와—“거친 직물”—“휘장”—“광채”가 훨씬 논리적 의미면전을 설명하기 때문이며, 셋째 “지성소신단”에 대한 가장 적합한 수메르 단어는

18) 이 문제에 결정적 쐬기를 박은 것은 고대근동 언어와 고고학의 양분야에 예의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은(현존하는 최고령의 학자) Harvard 대학교의 Thorkild Jacobsen 박사가 “*barag*, borrowed by Akkadian as *paraku*, means ‘throne dais’, not ‘Shrine’.”이라고 그 당대, 그의 학적 경쟁자였던 S. N.Kramer 박사의 *Sumerian Mythology* 책의 서평에서 단언한 이후부터였다.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 (1946) 128-152.

du₆ 이기 때문이다.¹⁹⁾

성경 히브리어 קִרְבָּן 이 (“지성소 회장”이란 뜻에서 환유된)를 가리키고, 동시에 수메르 언어학적, 고고학적 증거들이 “지성소 회장”의 존재를 확증한다면, 이 “지성소 회장”이 신학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 성경의 규범적 “지성소 회장”이 고대근동의 현상적 “지성소 회장”에 대한 종교정책학적인 공헌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성소 회장이 거룩과 세속, 거룩과 절대 거룩의 절대적 분리와 거룩해진 세속—거룩이 절대 거룩에로의 만남의 역리적 이중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무슨 요소가 비거룩을 회장으로 막아 거룩의 실체와 비거룩의 실체를 동시에 분리시켜 보호하고, 동시에 회장을 열고 교체하게 하는 것일까란 문제이다.

출 34:29-35에 나타난 모세의 “수건”(כִּתְמוֹן)기사는 회장으로 막은 거룩의 기본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임재하신 절대 지성소와 같은 시내산 꼭대기에(출 19:10-25는 그 충분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한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재가(Sanction) 가운데 40주야를 단식하며 하나님은 만났던 모세의 얼굴꺼풀(פָּנָיו)에 광채가 났고(נִרְאָ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광채가 전달된 것으로— 그 광채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므로(וַיִּירָאוּ מִפְּנֵי מֹשֶׁה, 출 35:30), —이 광채는 “죽이는 광선”(lethal rays)으로 이 광선에 노출되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므로—수건으로 자기얼굴을 가리우게 된 것이다. 이 본문에 나타난 “수건”은 “지성서회장”과 꼭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장(내지 수건)안쪽에 있는 거룩의 기본요소는 “죽이는 광선”인 것을 알 수 있다.²⁰⁾




19) 이 문제 대한 자세한 논고는 필자의 학위논문 제4장 III. 1을 참조하라.
20) 죽이는 광선이 “뚫고 나옴”(“to break through”, 성경히브리어 פָּרָסָה 에 아카드어 parāsu)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사용된 다음의 성경본문은 보다 자세한 주석적 분석과 종합을 요하나, 지면 관계상 다음의 기회에 상론하고자 한다: 출19:22, 24; 삼하6:8; 대상13:11; 15:13, 15; 삼상3:1(“이상”, וַיִּירָאוּ 와 함께 사용됨); 비교, 민4:15(동사 נִרְאָה 와 함께), 20(동사 פָּרָסָה 와 함께); 출33:20(וַיִּירָאוּ מִפְּנֵי מֹשֶׁה), “소멸하는 불”(레9:24; 16:3; 민11:1; 레10:2; 시106:18; 신4:14; 히12:29); 참조, 창3:24; 출3:2. “광채가 나다”(נִרְאָה)는 동사는 본래 “뿜”(נָפַח)이란 명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태양광선”과 함께 사용되었다(합3:4, וַיִּירָאוּ מִפְּנֵי מֹשֶׁה; 참조, Sumerian

고대근동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죽이는 광선”—사람의 육안으로 절대 바로 쳐다볼 수 없는—의 실체는 바로 지금 이락의 동부에 있는 Zagros 산맥에서 떠오르는 태양임을 단정할 수 있다. 고대에나 현대에나 태양이 가장 기본적인 발광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고대근동에 가장 오랜 전승역사를 가진 Gilgamesh Epic이 또한 출 34:29-35의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직접 관련된 본문을 인용해 보면 (9번째 토판 2번째 문단 1-11행)

1. 그 산의 이름은 마슈인데,
2. [길가메쉬가] 마슈산맥에 [도착했을 때],
3. 그 산은 매일 태양의 [떠고 지는] 것을 지켜보고,
4. 태양의 꼭대기들은 하늘 천정에 [닿았고],
5. 태양의 허리들은 땅 아래까지 닿았고,
6. 전갈(모양의) 문지기들이 그 문을 지키고,
7. 태양의 공포는 전율적이며 태양을 홀긱 봐도 죽고,
8. 그 눈부신 후광은 산들을 휩쓸고,²¹⁾
9. 그 산은 태양이 떠고 질때 태양을 지켜보네.
10. 길가메쉬가 태양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11. 전율로 그의 얼굴이 침침해졌다.

태양광선이 거룩의 가장 선사적 내지 어원적 개념의 지시물이었다면, 왜 구약에 하나님을 태양으로(시 84:11; 104:2; 합 3:3-15; 딤후 6:

Si=Akkadian qarnu, “뿜”, šarūru, “광채”). “영광”이 (예: נִרְאָה, נִרְאָה, נִרְאָה) “두려운 광채로 옷입다”(נִרְאָה; 참조, Sumerian mu₄-mu₄=Akkadian labāšu가 melammu와 pul(u)h(t)u와 함께 사용)와 관계되는 사실도 보다 철저한 주석적 고찰이 요청된다. 신약에 나타난 “영광”과 “두려운 광채”의 연계(Collocation)는 마17:1-8(=벰후1:16-18), 고후3:7-18(=출34:29-35의 주석); 딤후6:16; 계21:11-23을 참조하라.

21) 제7-8행의 원문: ša rašbat puluḫat-sumuma imrat-sunu mūtu galu melammu-šunu saḫip ḫursāni. 참조 제10-11행의 “구려움과 전율”이란 고정구(frozen phrase)와 원문: puluḫta u rašubbata Gilgamesh Epic의 본문전승에 대한 귀한 연구서인 J.H. Tigay,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를 참조하라. 우록토판에 나타난 태양신(Utu). 낮(u), 흰/밝은/은빛의(babbar) 등의 뜻을 가진 최초의 그림 문자 UD는 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바 필자는 은산등성이에 떠오르는 태양()과 조각배를 탄() 태양이 낮에는 하늘 천정에, 밤에는 땅 아래로 여행하는 것으로 고대인들이 이해한 것으로 해석한다. 수많은 원통형 인장에 나타난 태양신 Utu의 모습 역시 이 동기(motif)를 잘 묘사하고 있다.

16; 계 21:23비교 욥 37:22),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말 4:2=눅 1:78-79; 사 9:2; 비교 사 60:1, 19; “날개”(즉 “광선”)까지고, 말 4:2; 시 139:9), 그리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첫 동인이 되시는 성령님을(태양) 빛으로(히 6:4; 10:32; 비교 뵤후 1:19)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개념을 보여주는 지시물로서의 태양이 하늘 천정에 닿을 만큼 “높이 떠 있고”, 그 태양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을 때의 “맑고 깨끗한” 담청의 하늘색은 거룩의 일차적인 개념으로서의 “죽이는 광선”과 함께 발전된 부차적인 거룩의 개념들인 것을 태양신(Sumerian Utu=셈족의 Šamas) 찬양시(hymn)나 신화(myth)에 나타난 태양신의 찬양 문구들을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²²⁾ 따라서 필자는 거룩개념의 원소적(primitive) 삼대요소는 태양의 “광채”(sheen), “고상”(loftiness) 및 “청결”(purity)인 것을 결론짓게 되었다.

태양의 “광채”는 고대인들이 태양이 떠오를때나 질때 산등성이를 치는 황금색이나, 지금 현대인들이 대도시의 고층건물 속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 황금색에서 왜 금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도록 거룩을 상징하는 귀금속이며 왜 황금색이 거룩의 색인가 하는 이유를 찾게되며, 마찬가지로 구름 속에 숨겨진 태양으로 인하여 구름 가장자리에 태를 두르는 은색이 또한 왜 거룩의 색이며 은 역시 거룩의 귀금속인가 하는 해답을 얻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그 “고상성”은 바로 왜 신상을 지성소 신단위에 두거나, 또는 메소포타미아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인공적 산인 지구랏의 정상에 신의 거주지로서 “암실”(Sumerian é-itima=Akkadian Simakku, Kissu;é-u-nu-zu 여자적으로 “빛을 알지 못하는 집”이란 뜻)이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태양이 맑은 하늘에 떠 있는 그 “청결”은 바로 담청색의 돌인 lapis lazuli가 왜 고대근동신전에 지성소 단장에 사용되었으며,²³⁾ 신전기초를 놓을 때 가마로 “불에 구운” 벽돌이나 “깨끗한 모래 흙”을 별도로 깔거나 뿌리는—특히 그 신전이 공동요지와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 더욱—이유를 설명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색의 완전거룩을 묘사한 trisagion

22) 보다 자세한 고고학적이거나 문헌적인 고찰을 위하여 필자의 학위논문 제4장 II, 1을 참조하라.

23) 비교: 출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에는 청옥(גִּבְעַת סַפִּיר, sappire 혹은 lapis lazuli)을 편듯하고 하늘같이(מִן הַשָּׁמַיִם מִן הַשָּׁמַיִם) 청명(גִּבְעַת)하더라.”

이라 불리우는 사 6:1-7은 거룩개념의 원소적 삼대요소를 규범적으로 설명하는 최상의 본문이 된다.

광채: 일곱과 발을 각각 두날개들로(하나님의 광채로부터) 가리고 있는 (ΓCJ P;) 거룩한 영물들(ἁγία πνεύματα)²⁴⁾; 충만한 연기

고상: 높이 들린 보좌(ἕψηθη ὁ θρόνος αὐτοῦ)에 앉으심)

청결: 옷자락(ἵματιον); 흰 예복; 비교, 나 3:5; 렘13:26); 편뿔을 입에 댐)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근동의 문헌과 고고학적 유산이 가리키는 거룩의 원소적 세 요소는, 참된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과 그 유사성을 비교함이 결코 아니라, 비록 타락하고 왜곡되어 사탄숭배의 중심점으로 놓여있던 그 지성소 휘장과 그와 관련된 종교적 제도라 할지라도, 그 문화를 비평하고 평가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예: 롬 1:28-25; 8:18; 23; 행 17:22-31), 참된 거룩의 원소적 세요소에 대한 탄식과 기대임으로 고대근동의 비종교문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실례를 보게 되는 것이다.²⁵⁾

V. 찢겨진 “지성소 휘장”—십자가상의 찢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앞서서 밝힌대로 “구속사적, 기독교적, 십자가 신학적”인 중심점을 갖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이 그 어떤 타 세속학문과 접촉할 때, 반드시 “종교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세련화 작업에 세속학문은 공헌할 수 있고 또 공헌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죄인의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참 문화의 주인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 27:51은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떠나실 때,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류역사에 타락한 비종교한 고대근동의 문화이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중생한 하나님의 선인문화이전, 모두 함께 세속과 거룩, 거룩과 절대거룩의 분리와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물증이었던 지성소 휘장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 기능이 성취되고 종식되었다. 히 10:19-20은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 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4) 구약에 사 6:2, 6에만 나타나는 “스랍”이란 영물들은 그 어원이 가리키는 데로(비교: Aramaic ܫܪܦ; Ugaritic srp; Akkadian sarāpu) “태우는 불”—따라서 광채와 청결의 이중요소—의 상징을 암시한다.

25) 본 논고의 각주 1에서 소개한 필자의 줄고 “십자가와 지구랏”에 고대근동문화에 대한 종교경제학적 평가 일반에 대하여 취급한 94-107을 참조하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지성소)휘장은 곧 저의 (찢겨진)육체니라”고 재천명하고 있다.

그가 찢으신 자신의 육체로 인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아래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고(십자가의 수직적 나무가 상상하는대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더러운 죄인 사이에 악한 담이 찢어졌고), 그가 흘리신 보혈과(히 9:14, 22)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불경건과 불의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엡 2:1-3; 롬1:18) 완전히 씻기시사(=중생; 요 13:10; 고전6:11; 엡5:26, 27; 히 10:22; 딤후 3:5), 본질상 거룩한자를 만드시오(살후 2:13; 벧전 1:2), 계속 죄성—죄습관—죄행위—죄오염의 사중적 더러움에서 씻겨지고, 계속 더 모은 일에 거룩해지고, (행 22:16; 계7:14; 22:14), 하늘지성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히 4:16), 새롭고 산길을 영원히 찢어진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결론 : 거룩이해의 경책적 적용과 그 변화의 열매

거룩과 성결 법전인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심장을 듣고 느끼는가?

레 11:44로 부터 반복되는(19:2; 20:7, 26; 21:8, 15; 22:9, 16, 32) 거룩에의 함성과 벧전 1:14-17에 그 메아리를 얼마나 나의 실생활에 실감하고 있는가? 거룩의 원소적 삼대요소가 “광채” “고상” “청결”임을 이제 새롭게 배우면서, “이전에” 어둡고, 친하고, 더러웠던 삶에서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해같이 빛나며”, “위에것만 생각하고, 찾고, 사랑하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확실한 거룩에의 이해와 그에 따른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의 본문으로 롬 3:21; 엡5:8; 골 3:7, 8; 딤후 3:3-7; 벧전 2:10을 참조하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 “광채”와 “고상”과 “청결”의 관점에서 보다 더 분명한 거룩을 “모든 행실에서”(벧전 1:15) 시위할 수 있도록 이 줄고가 경책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아멘!

번역

청교도, 성(性), 그리고 쾌락*

(THE PURITANS,SEX,AND PLEASURE)

저자 : DANIEL DORIANI**

번역 : 강 필 증***

청교도의 율법주의, 명랑하지 못함(Joylessness)과 금욕주의적 자본주의 그리고 암전한 체하는 태도 등에 대한 비방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자적인 태도(scholars' attention)에 접근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용기와 활동력을 보여 주었다.

과거의 비난들은 새로운 작가들을 통해 여전히 흘러 나오고 있다. Lyle Koehler는 청교도들이 잘 차려진 음식, 오락등을 세속적인 세계의 “장난감들(toys)”이라고 판단해 버리며 “감각적인 쾌락(pleasure)에 대해 도덕적인 혐오”를 느낀다고 비난한다.¹⁾ Lawrence Stone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구교도들이 “감각 그 자체와 육체의 욕망은 악(evil)”이라고 믿는데 대해 비난했다. 그는 기독교와 특별히 도덕적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쾌락은 특히 죄스러운 것이었다”²⁾ 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이후 기독교와 비기독교 학자들은 이와같은 비난에서 청교도들을 구해내느라 수고해 왔다. 그들은 청교도가 혼련되어지고, 규칙을 엄수하기는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그들은 음식, 음료 그리고 오락들을 어느 정도로 즐기는 입장이며 율법주의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방어자들은 청교도들은 섹스를 포함한 부부간의 사랑에 있

*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3TH, 1991, 125-143에서 완역한 것임

** Geneva College 성경신학 조교수

*** 고려신학 대학원 3년

¹⁾ Lyle Koehler, *A Search for power*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0) 10.

²⁾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499, 523.